

효성, 용연2공장에서 초산 누출

회수공정에서 누출방지 장치 노후화로 ... 초산은 인체 무해

2월20일 오후 3시30분께 울산시 남구 성암동의 석유화학기업 효성 용연2공장에서 초산(Acetic Acid)이 누출됐다.

담당구청인 울산 남구는 당시 효성이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초산을 회수하는 공정에서 누출방지장치가 노후화돼 초산이 증기형태로 새어나왔다고 밝혔다.

초산은 장치를 보수하는 40여분 동안 간헐적으로 극소량이 누출됐으며 초산 자체는 인체에 해가 없다고 남구청 관계자는 언급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21>